

수확체증의 법칙 역발상으로 극복 ...



(주)렉스진바이오텍
권석형

바이오벤처하면 손익분기점 도달이 막연해 보이는 산업구조와 막대한 초기투자가 요구되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먼저 떠오르는 산업이다. 다시 말하면 자본의 3요소 중 초기설립 및 연구자금이 바이오벤처의 인큐베이팅 단계서부터 자생력이 생길때까지 절대적인 성공요인중 하나인 것이다.

(주)렉스진바이오텍은 다음과 같은 성장전략을 수립했다.

첫째, 시장에서 매출과 수익을 최단기간에 이루어 낼 수 있는 예방의학적 건강기능성식품시장에 주목하였다. 또한 산학연구를 통한 연구비 절감과 온누리약국체인(설립초기부터 주주로 참여)을 통한 고객의 NEEDS를 최대한 반영, 벤처기업의 초기의 마케팅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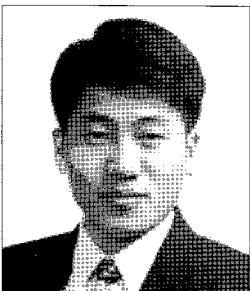
둘째, 철저한 수익 위주의 영업, 인력 및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내실경영에 주력하였다.

1995년 설립부터 1999년 IMF까지는 임직원들의 합의를 통한 긴축경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였고 1998년 렉스진바이오텍 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통해 2002년 성공적인 IPO로 마무리되게 되었으며 현재 향후 성장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

셋째, 미국에 JOINT VENTURE로 신약개발전문연구 바이오벤처인 렉산을 설립, 주주로 참여하면서 신약개발의 최첨단 동향을 파악하고 렉산에서 향후 개발될 신약을 국내 KFDA에 신약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주)렉스진바이오텍이 설립 시부터 꾸준히 추구해온 신약바이오로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STAR종목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시장 뿐 아니라 WORLD MARKET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바이오벤처 투자동향 및 전망



한미열린기술투자(주)
파트너 배신규

2000년초 창업투자회사, 투자조합의 결성규모 및 실적 등으로 볼 때 최고조에 올랐던 국내 벤처투자 열기는 2000년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현재에는 벤처투자 실적이 4조1천억 원규모(투자잔액기준)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투자금액의 약 5~8% 정도로 추정되는 바이오벤처 투자실적은 약 2,000 ~ 2,500억원 정도이며 투자 건수로는 약 500여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2001년 하반기에 바이오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조사된 설문자료에 의하면 2002년 하반기부터 투자분위기가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올 하반기 주식시장은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특히 코스닥시장은 각종 부정과 비리가 연루되어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지

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닥이 유일한 회수방안인 국내 벤처캐피탈들은 코스닥에서의 투자회수가 불투명해지면서 바로 벤처캐피탈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신규투자가 동결되는 악순환에 들어가는 실정이다.

또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운영기간이 5년인 펀드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회수기간이 긴 바이오벤처 투자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바이오투자펀드의 경우 운영기간을 늘리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휴먼지능프로젝트의 완성으로 이후 4~5년내에 각종 새로운 바이오제품들이 본격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바이오투자 붐이 한번 더 기대가 되며, 이르면 2003년 하반기부터 투자분위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싸이제닉 이 희 설 대표



The keys to Biotech Investing

생명공학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결정하기 어렵고 걱정스럽다. 생명공학이 산업 분야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향후 50년 이상을 주도할 산업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어느 회사에 어떻게 투자해야 위험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신약 1개를 성공적으로 개발하면 수십 억불의 수익이 창출되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성공을 기대하고 투자하지만, 실제로 신약 1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0~15년의 시간과 평균 8억불이라는 연구개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생명공학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장기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거기다가 미국 나스닥의 바이오 관련 추가흐름이 보여 주듯이 2000년 3월에 비해 현재의 주가는 심한 경우 1/25로 떨어진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가의 부침이 과연 생명공학 회사의 경우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닐 것이다. 생명공학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인만큼, 잘 선별된 회사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면, 블록버스터를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바이오벤처기업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꼭 살펴봐야 할 평가항목들이 있다.

첫째 비즈니스 모델을 잘 갖추고 있는지 보자.

- 바이오사업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꾸준한 수익을 통한 자금 확보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업유지를 위한 수익 구조와 수익 계획은 어떠한지(revenue generation plan).

-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및 IPO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fund raising and IPO plan). 둘째 초기의 사업계획이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보자.

- 초기 계획대로 연구 개발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지(product mix),

- 특허 출원 및 등록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patents)

- 연구개발 마케팅 등 사업을 위한 각 분야의 외부 협력(alliance)과 사업의 수직 통합(vertical integ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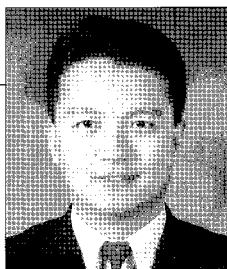
- 그리고 재무적인 성과는 어떠한가(financial performance).

셋째 초기 계획이 차질이 생겼다면 어떠한 부분이고, 그 차질을 보정해줄 계획은 잘 짜여져 있는지 봐야한다.

마지막으로 경영진과 전문인력들이 사업수행에 적합한 인력인지 점검 해봐야 한다. 과학적 성과가 아무리 뛰어나도 전문 경영 능력을 보유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최근 많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때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기술투자 생명공학팀 조 영 국 팀장



바이오기업의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전략

벤처 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는 사업 아이템과 참여 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 둘만 가지고는 사업을 해 나갈 수 없다. 바로 자금이 필요한 것이다.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해외기술 수출이나 대량제품의 판매를 하는 안정된 시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와 성격의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은 가족 친지들의 돈을 포함한 자기자금, 임직원이나 거래처 등의 지인들의 자금, 엔젤 자금, 창업투자 자금, 은

행의 융자,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이나 사업화 자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창업투자자금은 그 투자의 시기와 결정 방법 등에서 다른 자금들과 약간의 차별성을 가진다.

이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시장에 대한 이해 및 적절한 표현 방법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창업투자회사 자체의 본질과 그들의 업무프로세스 및 투자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무엇인

지 이해해야 한다.

최근 들어 창업 투자자들은 더욱더 기술보다는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구체적으로 언제 돈이 되는지를 많이 따지게 되었다.

경영진과 연구자들의 경험 및 사업에 임하는 자세도 매우 중요한 심사 대상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투자 후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은 얼마이고 위험요인은 무엇인지에 관심이 많다.

또한 각 회사들마다 추구하는 스타일이 달라 그 성향을 파악하고 접근한다면 벤처사들은 더욱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